

고전 대중화의 든실한 주춧돌

창립 30주년 맞은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과 인재양성 등 활발히 활동

우리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족한 민족문화추진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추진회는

그간 이룩한 성과를

되짚어보며 스스로 채찍질하는

결의를 보인다.

민족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온 민족문화추진회(회장 이우성)가 지난 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원순 위원장(국사편찬위)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이우성 회장은 그간 민족문화추진회가 거둔 성과를 언급하면서 민족문화추진회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당대에서 끝날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후대로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불가결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구문화에 맞선 마지막 보루

민족문화추진회가 설립된 1965년은,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최우선시되고 서구화 물결에 따라 외국문화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던 시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병도·박종화·최현배 등 학계·예술계 인사 50명이 발의하여 민족문화추진회를 창립, 민족문화의 보전·전승·개발·연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족문화추진회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고전 국역'. 대부분 한문으로 된 근대 이전의 고전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일은 단절되다시피한 문화전통을 잇는 데 있어 시급한 과제였다. 지금까지 《연려실기술》(이규익)을 시작으로 《동문선》《목민심서》《동사강목》 등 45종 246책에 달하는 일반고전과 12종 229책에 달하는 《조선왕조실록》을 번역·완간했으며, 93년부터는 고·순종대의 《승정원일기》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미 40책을 완역, 선보이고 있어 그 수는 모두 58종 515책에 이른다.

최근에는 'CD롬 국역판 조선왕조실록'(서울시스템) 제작에 참여하여 고전 대중화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뛰어난 검색

기능으로 일반대중도 쉽게 이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창고에서 썩어가던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1974년에 국역연구원을 건립한 것은,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국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시작한 국역자 양성 사업은 민족문화추진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지난 21년간 이 연구원을 거쳐간 국학도는 모두 66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현재 민족문화추진회는 물론 학계와 관련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숙제로 남은 사업들 산적해 있어

이밖에도 원전 정리사업, 고전 대중화 사업 등 민족문화추진회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전 정리 사업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중요 원전들을 수집하여 정리·출간하는 일. 지금까지 우리 선현들의 문집(文集) 435종 160책이 출간했으며, 이들 문집에 대한 해제집과 색인집도 연차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총 67종 103책의 민족문화문고를 간행했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고전읽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국역 작업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역하게 되면, 일반대중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펴낸 《조선왕조실록》처럼 일반대중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펴내게 되면, 전문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찬수 사무국장은 민족문화추진회의 주된 사업인 국역 사업과 관련하여 고충을 털어 놓는다. 또, 책을 펴내도 시장성이 없는 까닭에 한정출판만이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완역된 서적들 중에 아직까지 출간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결국 가장 큰 고충은 재원 문제. 민족문화추진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직원의 처우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고전 국역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진행되어 인재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역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과거에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 총서 목록

	서명	편저자	책수	비고	서명	편저자	책수	비고
일반고전	연려실기술	이규익	12	완(색1)	동사강목	안정복	10	완(색1)
	고려사절요	김중서 등	5	"	성소북부고	허균	5	"
	열하일기	박지원	2	완(색0)	동국이상국집	이규보	7	"
	퇴계집	이황	2	완(포)	양촌집	권근	5	"
	율곡집	이이	2	"	미수기언	허목	6	"
	사변록	박세당	1	완(색0)	청장관전서	이덕무	13	"
	동문선	서거정 등	12	완(색1)	익재집	이체현	2	완(포)
	목민심서	정약용	3	완(색0)	약학계법	성현 등	2	"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 등	7	완(색1)	기축체의	최한기	2	"
	청구도	김정호	2	완(색0)	인정	최한기	5	완(색1)
	대동야승	성현 등	18	완(색1)	산림경제	홍만선	2	완(포)
	만기요람	서영보 등	3	"	우서	유수원	2	"
	하곡집	정계두	3	"	송자대전	송시열	16	완(색1)
	담헌서	홍대용	5	"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6	26(색2)
	해행총재	정몽주 등	12	"	다산시문집	정약용	9	10(색1)
	경세유표	정약용	4	"	완당전집	김정희	3	4(색1)
	여한십가문초	왕성순	1	완(포)	고봉집	기대승	3	"
	연행록선집	김창업 등	12	완(색1)	상촌집	신홍	6	7(색1)
	성호사설	이익	12	"	한주재집	권상하	5	6(색1)
	고려도경	서궁	1	완(포)	계곡집	장유	3	6(색1)
삼봉집	정도전	2	"	국조보감	신숙주 등	5	9(색1)	
면암집	최익현	3	"	백호전서	윤휴	3	12(색1)	
45종 246책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	일기청	9	완(색1)	광해군일기	일기청	27	완(색2)
	중종실록	실록청	55	완(색3)	인조실록	실록청	22	완(색1)
	인종실록	실록청	1	완(포)	효종실록	실록청	9	"
	명종실록	실록청	17	완(색1)	현종실록	실록청	10	"
	선조실록	실록청	45	완(색3)	현종개수실록	실록청	13	"
	선조수정실록	실록청	4	완(합)	정조실록	실록청	17	완(색2)
	12종 229책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고종)	승정원	40	220(10)				고종대
	1종 40책							
합계	58종 515책							

이미 번역된 책의 경우 감각이 요즘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정·개판 또한 시급하다."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뜻있는 기업

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 민족문화추진회에 기부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동림 기자